

가정 예배 모범

- 2020_12_06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새찬송가 516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역대하 27:1-28:15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요담은 왕으로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담 왕은 아버지 웃시야가 행한 옳은 일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전과 성벽, 성읍과 망대 등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물들을 보강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담 왕은 아버지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웃시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요담 왕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일은 본받고 잘못된 일은 거울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본받아야 할 일과 바로잡아야 할 잘못을 함께 나누어보세요.

2) 아하스는 왕으로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아버지 요담과 달리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바알을 만들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은 온 유다 백성을 타락으로 이끌고 나라를 심판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한 사람의 악행은 주변을 죄로 물들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악행은 온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바르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